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급단계에서 피아노 페달의
사용방법과 지도에 관한 연구

-초급과정의 교재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김 세 은

2010년 8월

초급단계에서 피아노 페달의

사용방법과 지도에 관한 연구

-초급과정의 교재중심으로-

지도교수 심 희 정

김 세 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김세은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8월

국문초록

초급단계에서 피아노 페달의 사용방법과 지도에 관한 연구 -초급과정의 교재중심으로-

김 세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심 희 정

페달은 피아노를 연주함에 있어 완성도를 더해주며, 대부분의 전문 연주자들에게 있어 화려한 기교와 음악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페달링이 고급수준에서만 구사되는 기교가 아니라 두 손과 함께 피아노 연주의 기본축을 담당하는 것이 라 보면 초보자들에게 페달링이 친숙해지도록 하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아노 페달의 체계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초급단계에서 피아노 페달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문헌을 통하여 피아노 페달의 발달 과정, 구조와 기능,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초급 단계 페달지도 방법이 이루어 졌고, 페달 지도 방법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시켜 학생들을 지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올바른 페달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달링의 학습 지도는 초급 단계부터 도입되어야 하고 정확한 페달 주법에는 정확한 청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달학습과 동시에 듣기 훈련도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이 항상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페달링 할 수 있도록 청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페달 지도 방법에서는 올바른 페달링을 위해 준비학습과 기본학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동시페달과 레가토 페달의 순서로 지도하여 페달의 지속, 울림기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지도방법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지도 방안을 단계적으로 학습시킴으로서 이 페달 지도 방안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은 학습자가 페달링의 효과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페달링이 손과 함께 피아노 연주를 완성하는 기본 요소로 인지하고 구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지도한다면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2
II. 이론적 배경	3
1. 피아노 페달의 발달 과정	3
2. 피아노 페달의 구조 및 기능	4
3. 피아노 페달의 기법의 종류	5
III. 초급단계 페달 지도 방법	14
1. 입문시기와 목표	14
2. 교재	15
3. 학습준비	26
4. 기본학습	30
IV. 실제 수업 지도방안	36
1. 수업내용	36
2. 수업 지도방안	36
3. 수업 지도 방안의 결과	51
V.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1
영문초록	63

악보목차

<악보1> Clementi, Sonatine Op.36, No.6	6
<악보2> Hermann Necke, Csikos Post	7
<악보3> Chopin, No. 4 in C sharp minor op. 66 Fantaisie-Imprompt	8
<악보4> Chopin. Prelude	8
<악보5> Liszt, Consolation	9
<악보6> Beethoven, Fur Elise	9
<악보7> Lange, Blumenlied	10
<악보8> Debussy, 'Clair de lune' Suite "Bergamasque"	11
<악보9> Michaelis, Die Schmied im Walde	12
<악보10> 페달의 연주	17
<악보11> 하프의 노래	17
<악보12> 푸른 옷소매	18
<악보13> 인터메조	19
<악보14> 페달공부	20
<악보15> 동트기 전	20
<악보16> 숨사탕	22
<악보17> 동시페달 (아르페지오)	24
<악보18> 신비한 바다속	32
<악보19> 비엔나 왈츠	32
<악보20> 교회 안에서	35

부록악보 목차

<악보1> 시계 종소리	53
<악보2> 토성의 폭풍	54
<악보3> 스페인 경마병	55
<악보4> 물결과 바람	56
<악보5> 해변의 축제	57
<악보6> 어메이징 그레이스	58



그림 목차

<그림1> 페달 표기방법 및 의미	16
<그림2> 연결 페달 표시와 사용법	18
<그림3> 페달 표기 방법 및 사용방법	20
<그림4> 연결 페달 표시법	21
<그림5> 연결 페달 바꾸는 연습방법	21
<그림6> 페달 표기 방법과 사용법	23
<그림7> 페달 표기 방법 및 사용방법	24
<그림8> 페달을 밟는 자세	27
<그림9> 페달 사용 할 때의 발의 위치	27

보기 목차

<보기1> 예비연습	18
<보기2> 연결 페달 연습 방법	21
<보기3> 페달 사용여부에 따른 소리의 차이 (아르페지오)	23
<보기4> 페달 사용여부에 따른 소리의 차이 (화음)	23
<보기5> 페달의 지속 기능	25
<보기6>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페달 사용 시의 차이	25
<보기7> 오른손과 싱크페이티드 페달 연습	25
<보기8> 왼손과 싱크페이티드 페달 연습	26
<보기9> 페달 사용 시와 미사용 시의 차이	28
<보기10> 페달의 연결기능	29
<보기11> 페달의 지속기능	29
<보기12> 화음 연습곡	30
<보기13> 화음 연습곡	31
<보기14> 아르페지오 연습곡	31
<보기15> 페달을 바꾸는 타이밍을 확인하는 연습1	33
<보기16> 페달을 바꾸는 타이밍을 확인하는 연습1	33
<보기17> 레가토 페달의 예비연습<화음연습곡1>	34
<보기18> 레가토 페달의 예비연습<화음연습곡2>	34
<보기19> 레가토 페달의 예비연습	34
<보기20> 펼침화음에 레가토 페달의 사용연습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의 올바른 사용법만큼 미묘한 기술은 없을 것이다. 페달의 사용은 음색의 변화, 음향의 효과 및 음의 지속을 위한 수단이며 예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페루치오 부조니(Ferruccio Busoni 1866-1924)는 “페달은 달에서 비쳐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이 피아노를 변모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했고, 안톤 루빈스타인(Anton Rubinstein 1829-1894)은 “피아노를 점점 더 오래 연주해 나갈수록 나는 페달이 피아노의 영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¹⁾

이들의 말을 통해 피아노 페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에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아노 연주자는 페달 사용법에 대한 다양한 테크닉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와 사용법을 철저히 익혀야 함은 물론 연주 시 곡의 특성이나 연주하는 환경, 전달하고자 하는 연주자의 감성에 걸맞도록 페달링을 구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페달링을 예술적으로 사용하는 경지에 이르는 데에 경험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개별 연주자의 몫으로 남겨질 여지가 크다면, 우리가 페달링 교육법을 구성하는데 있어 집중해야 할 부분은 학습자가 페달을 제 3의 손으로 인지하고 구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본다.²⁾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페달은 음의 강약을 조절해 주고 음의 혼합 및 음색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전문 연주자에 이르기까지 피아니스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페달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효과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페달의 올바른 사용법은 미묘함과 고도의 기술을 동시에 필요로 하며, 적절한 사용법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달 사용법은 몇 가지 많이 사용되는 규칙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

또한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피아노 페달에 흥미를 가지고 발이 페달에 닿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어서서라도 페달을 밟고 치려고 한다. 그만큼 페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소리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는 많은 학생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범영숙(2003),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육」, 삼호뮤직, p.113

2) 노이하우스 (Rudolf Neuhaus, 1914~1964)는 피아노 음악을 ‘세 개의 손의 음악’ 이라고 하여 건반에서 두 개의 손이 연주하고 페달에서 한 개의 손이 기술을 발휘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러한 호기심의 대상인 페달을 지도할 때 피아노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페달을 지도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연구자 또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아노 페달링에 관한 교재의 부족성과 페달의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절한 페달 사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페달링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초급자를 위한 페달링 학습 방법을 고안하는데 있으며 학습자가 페달링의 효과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페달링이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특수효과가 아닌 손과 함께 피아노 연주를 완성하는 기본요소로 인지하고 구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연구자는 초급단계부터의 페달링 교육법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의 페달링 운용 기초가 잘 구축되면 보다 진보된 페달링 학습과 교육의 체계를 완성하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보고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링 지도법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제한점

본 논문은 페달링의 이해를 돕고 초급 피아노 페달 교육에 있어 기본이 되는 페달링의 원리를 이끌어내 적용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피아노 페달의 발달과정과 세 개의 페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기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3장은 초급단계 페달지도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초급단계 페달 지도 방법을 바탕으로 실제수업에 적용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급과정의 피아노 페달을 연구하는데 있어 페달의 발달과정과 페달의 기법이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어렵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페달의 기능과 기법을 이해하면 페달의 필요성과 효과를 더욱 실감하게 되고 페달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페달링의 입문시기부터 기초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초급단계의 학습자들이다. 이유는 피아노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초급단계의 올바른 페달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페달링 지도 방법은 피아노에서 사용되는 세 개의 페달 중에 초급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른쪽 페달(댐퍼 페달)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초급자를 위한 페달 교육의 범위는 피아노 초급 교본 수준내의 곡목들로 제한하고자 한다.

참고 교재는 알프레드 기초 교본, 베스틴 피아노 교본, 하이비스 피아노 교본, 톱슨 피아노 교본, 피아노 어드벤처 교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피아노 페달의 발달 과정

페달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Pes(발이라는 뜻)의 복수형인 Pedes에서 유래되었다. Pes는 운율, 리듬, 박자라는 뜻도 있다.³⁾

최초의 피아노는 1709년에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Bartolomeo Cristofori)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고안하고 실용화하여 제작한 ‘그라비첼발로 콜 피아노 에 포르테 (gravicembalo col piano e forte)’ 라고 붙여지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피아노’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⁴⁾

1740년 고트프리트 질버만(Gottfried Silbermann)은 댐퍼를 올리고 내리는 핸드 스톱(Hand-stop)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핸드스톱은 연주자들이 일시적으로 건반에서 손을 떼도록 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불편하여 중지되었다.⁵⁾

그 후 1765년 독일에서 만든 피아노에서는 무릎으로 조정하는 니 레버(Knee lever)가 나오게 되었다. 니 레버는 움직이는 기능을 선택하여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을 나누어 댐퍼 조절을 하였다. 1777년에는 보다 진보된 댐퍼 작동법이 아담 베이어(Adam Beyer)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의 피아노는 분리된 발판으로 된 페달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의 댐퍼 그룹을 각각 따로 조정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발로 조정하는 페달의 작동 원리가 빠른 속도로 발달되었다.⁶⁾

1783년 런던의 존 브로드우드(Jonh Broadwood)와 파리의 에라드(Erard), 1789년의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의 요한 슈타인(Johann-Stein)등이 대표적인 제작자들인데 특히 브로드우드 피아노 사는 아담베이어의 원래의 개념, 즉 댐퍼를 분리해서 조정하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계승하여 1783년 분리된 페달에서 적절하게 반만을 누름으로써 연주자는 가운데(Middle C)를 중심으로 해서 저음부 댐퍼 전부나 아니면, 고음부 댐퍼 전부를 올릴 수 있었고, 두 페달의 양쪽 부분의 반만을 동시에 누름으로써 피아노현으로부터 댐퍼의 전 세트를 들어 올릴 수도 있었다. 이 당시의 에라드 피아노는 댐퍼의 전체 세트나 아니면 고음역의 댐퍼들만을 따로 올릴 수는 있었으나 저 음역만을 따로 올릴 수 없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개로 분리된 형태의 페달이 1830년 까지 지속되었으나 그 후로부터는 오늘날의 악기에서 볼수 있는 하나로 된 댐퍼페달로 대체되었다.⁷⁾

3) 박영수(1990), 「피아노 주법 연구」, 세광음악 출판사, P.184

4) 홍은경(2004), “페달의 모든 것-페달의 역사와 종류, 원리, 메카니즘”, 「피아노 음악」, 음연, 11월호, p.154

5) 유덕희·홍삼화(1994), “피아노 페달 사용법과 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p.73

6) Joseph Banowetz(2004), 「페달링의 원리」, 노영해 역, 음악춘추사, p.8

7) 상계서, p.8

왼쪽 페달인 소프트 페달(Soft pedal)은 1789년 독일에서 슈타인(Johann Andreas Stein)이 발명하였고, 1862년 파리의 클로드 몽탈(Claude Montal)이 제 3의 페달인 소스테누토 페달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고, 1874년 슈타인웨이 피아노에서 장치되었으며 특허권이 인계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⁸⁾ 그리고 1876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으며, 당시 음을 지속시키는 페달 (tone-sustainig pedal) 이라고 불렀다.⁹⁾

이와 같은 페달의 발달은 피아노 음악을 좀 더 다양한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주자의 기술연마가 절실히 요구되었다.¹⁰⁾

2. 피아노 페달의 구조 및 기능

1) 댐퍼 페달

댐퍼 페달의 구조는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가 비슷하다.

댐퍼 페달은 보통상태에서 댐퍼가 미리 현 위에서 누르고 있어 그대로는 현이 진동할 수 없으나, 타건과 동시에 댐퍼가 현으로부터 떨어지면서 현이 자유로이 진동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소리가 풍부해진다. 다시 말해 타건과 동시에 댐퍼 페달을 밟으면 그 건반들에 모든 댐퍼 들은 들어 올려지고 이들 건반이 나타내는 음들은 조화롭게 진동하게 되며 음색의 질은 풍부해지게 된다. 즉, 댐퍼 페달은 손가락들만으로 잡을 수 없는 음들을 연결하여 연장해주는 것과 소리를 풍부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¹¹⁾

이러한 댐퍼의 작동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오른쪽 페달은 보통 댐퍼 페달이라고 불린다. 댐퍼 페달은 “서스테인닝” 페달(sustaining pedal), “라우드” 페달(loud pedal), “포르테” 페달(forte pedal)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¹²⁾

2)소스테누토 페달

소스테누토 페달은 3개의 페달 중 가운데에 위치하며 원하는 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부르지만 톤날 페달(tonal pedal), 서스테인닝 페달(sustaining pedal), 오르간 포인트 페달(organ ped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랜드 피아노의 소스테누토 페달 작동법은 댐퍼들 밑을 통하여 자리 잡은 긴 막대기에 의해서 조절된다. 즉 건반을 누르고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으면 소스테누토 막대기가 소스테

8) 박영수(1990), 전계서, p.184

9) Joseph Banowetz(2004), 전계서., p.11

10) 송정미(2001),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p.45

11) 상계서, p.46

12) Joseph Banowetz(2004), 전계서, p.11

누토 탭(tab)을 잡음으로써 그 현이 페달을 뗄 때까지 자유롭게 울리게 된다.¹³⁾

이 페달의 작동효과를 나타내려면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아줄 때 지속시키고자 하는 음의 건반을 눌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눌러준 음에 해당하는 댐퍼들은 들어 올려 지게 되고 그 이후에 연주하는 다른 음들은 페달의 영향이 전혀 없는 소리를 내게 된다.

업라이트 피아노에서의 가운데 페달은 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소리를 줄이고 연습하는 용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페달을 사용하면 단지 음량만 작아진다. 이것은 해머 사이에 천을 끼워 넣어서 타건의 충격을 약하게 하여 소프트 페달보다 훨씬 더 조용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약음 페달이라고 불리 운다.

3) 소프트 페달

왼쪽 페달은 보통 소프트 페달이라고 불리는데 이외에도 우나 코다 (Una corda), 소르디노(sordino), 뮤팅(muting) 페달이라고도 부른다.

이 페달은 음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거친 음질을 제거함으로써 음향의 부드러움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단순히 소리를 작게 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색채감을 주거나 음색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 페달을 더 적절히 표현하자면 ‘이동페달(Shifting pedal)’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달이 그랜드 피아노에서 하는 일은 바로 건반을 이동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즉, 왼쪽 페달을 밟으면 해머의 전체 세트가 오른쪽으로 옮겨감으로 대부분의 음들에서 보통 3현대 신에 2현이 울리게 된다.

이때 음량은 훨씬 감소되고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보다 큰 변화는 해머가 충격을 덜 받는 부드러운 표면을 때림으로써 소리가 완전히 부드럽게 변질된다는 사실이다.¹⁴⁾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의 소프트 페달은 소리가 작아지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업라이트 피아노의 소프트 페달은 해머가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음에 따라 해머와 현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지는 것이다.

3. 피아노 페달 기법의 종류

1) 댐퍼 페달

일반적인 댐퍼 페달의 사용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과 화성 사이 혹은 각 음의 연결 효과를 내고자 할 때,

13) 상계서, p.106

14) 상계서, p.129

- 둘째, 썸머립 등의 효과를 원할 때,
- 셋째, 분산화음의 경우, 베이스음이 화음과 같이 울려야 할 때,
- 넷째, 리듬을 강조하여 윤곽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할 때,
- 다섯째, 음량을 풍부하게 하고 음의 색채감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레가토 페달링

레가토 페달링은 가장 많이 쓰이는 페달 테크닉으로 “싱크페이티드” 페달링(syncopated pedaling)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때로 “휠로잉” 페달링(following pedaling)이라고 불린다.

제일 단순한 형태로 두 음이나 두 화음을 부드럽고 깨끗한 레가토로 연결할 때 쓰이며 먼저 친 화음으로부터 아무런 소리의 잔재가 남지 않으면서 두 소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페달을 깨끗하게 바꿔줘야 한다.¹⁵⁾

또한 화음을 연주한 직후 페달을 누르면 피아노의 모든 현들은 그 즉시 자유롭게 진동하는데 레가토 페달링은 피아노가 노래하는 효과를 주며, 피아노라는 악기로부터 풍부한 음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¹⁶⁾ <악보1>

<악보1> Clementi, Sonatine Op.36, No.6 (제 53마디-제 55마디)¹⁷⁾



레가토 페달링을 사용할 때 페달을 떼었다가 다시 밟는 과정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음색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화음이 빠르게 바뀌는 부분이나 반복음이 쓰인 부분은 가능한 한 손가락으로 레가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¹⁸⁾

(2) 리듬 페달링(Rhythm Pedaling)

표현이 명확하고 강해야 할 경우 건반을 누름과 동시에 페달을 밟는 것을 말한다. 이런 페달링을 악센트 페달링(accent Pedaling), 논레가토 페달링(non legato Pedaling), 트레드 페달링(Tread Pedaling)이라고 한다. 이 페달의 특징은 변화에 필요한 속도, 역동성, 원하

15) 상계서, p.24

16) Piter Corazio(2001), 「예술로서의 피아노 연주 페달링」, 편집부 역, 음악춘추사, p.7

17)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80), 「소나티네앨범1」, 세광음악출판사. p.82

18) Joseph Banowetz(2004), 전계서., p.25

는 특정 효과에 따라 다양한 깊이로 페달을 적용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리듬 페달링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기보된 악센트를 강조하거나 색채감을 주기 위해 사용한다. 둘째, 스타카토와 스타카티시모 표시에 악센트를 주기 위하여 사용한다. 셋째, 악센트 표시가 붙고 논 레가토 터치를 요하는 패시지에서 사용한다. 넷째, 주로 행진곡이나 왈츠 및 춤곡에서 특징적 리듬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다섯째, 밟았던 페달을 놓아주어 동시에 생겨지는 악센트를 통해 리듬의 형태를 확실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¹⁹⁾ <악보2>

<악보2> Hermann Necke, Csikos Post(제 105마디-제 110마디)²⁰⁾



(3) 플러터 페달링

페달을 가볍게 재빨리 움직여서 쓰는 페달링으로 플러터 페달링 또는 비브라토 페달링 이라고 한다. 빠른 패시지에서 모든 음마다 페달을 바꿔주기란 불가능하지만 음색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럴 때 페달을 끝까지 깊숙이 밟아주지도 않고 완전히 떼지도 않으면서 계속 적으로 밟았다 떼었다하는 페달을 사용하는데 이때 페달을 끝까지 깊숙이 밟거나 완전히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²¹⁾

플러터 페달링은 소리의 울림을 섞어 주어 신비로운 효과를 줄뿐만 아니라 울림을 깨끗하게 해 주는 효과적인 주법으로 사용되고 강한 음량을 가진 스케일 또는 반음계적 음계의 비화성적 패시지에서 색채감을 주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또한 자유로운 카덴짜나 화음의 지속이 있는 경우 플러터 페달링을 사용하면 화려하고 명확하게 연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²²⁾ <악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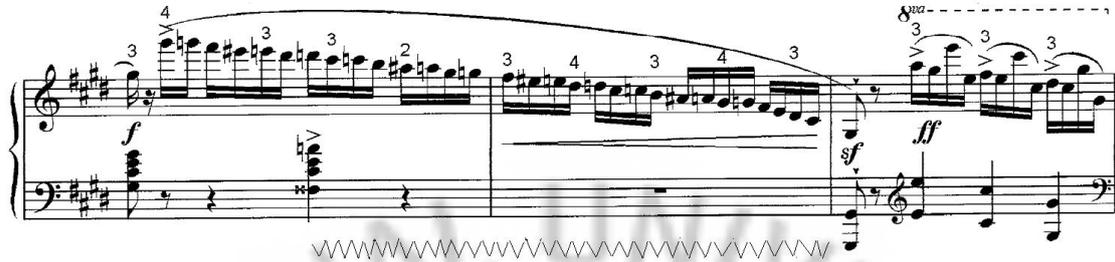
19) 하주연(2006), “피아노 페달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및 지도에 관한 연구-초급과정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P.26

20)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97), 「피아노명곡집」, 세광음악출판사, p.26

21) Joseph Banowetz(2004), 전게서., p.93

22) Gyorgy Sandor(2001), 「온 피아노 플레잉」, 김귀현 · 김영숙 역, 음악춘추사, p.72

<악보3> Chopin, No. 4 in C sharp minor op. 66 Fantaisie-Imprompt (제 35마디-제 37마디)



(4)부분적 페달링

페달의 깊이는 피아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깊이를 조절함에 따라 다양한 음색표현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페달의 깊이에 따라 댐퍼가 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페달을 완전히 누르면 댐퍼가 현으로부터 먼 위치에 있으므로 현이 더욱 활발한 진동을 하게 되어 풍부한 음량을 낼 수 있고, 페달을 약간만 누르면 댐퍼가 거의 현에 붙어 있다시피 하므로 미세하게 울리는 현들이 빚어내는 음색을 만들 수 있다.

① Full 페달

댐퍼들을 완전히 현들 위에서부터 올렸을 때 최대한으로 많은 소리가 울릴 때의 페달링을 말한다. 소리를 부드럽게 할 때와 중음부 또는 고음부에서 페달을 바꿔 밟을 때는 페달을 빨리 밟아야 하고, 낮은 음역을 연주 할 때와 포르테 (f), 포르티시모(ff)의 경우에는 다소 늦게 페달을 바꿔서 밟아 준다.²³⁾ <악보4>

<악보4> Chopin. Prelude (제 56마디-제 59마디)²⁴⁾



② 1/4 페달(25% 페달)

23) K.U. Schnabel(1976), 「페달의 현대기법」, 신인섭 역, 문수당, p.11

24)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97), 전게서, p.52

뎀퍼가 현들 위에 거의 완전히 안착했을 때 25%의 소리가 방출되며, 페달 위에서 발로 오는 약간의 압력을 느끼면서 조절해야 한다.

밝고 유연한 음향을 얻는데 필요한 스타카토 음계에서 사용되며, 페달 교체가 필요 없으므로 한 개의 악절 내지는 악구 전체를 통하여 사용해도 괜찮다. 또한 썸머림이 pp, p, mf 의 모든 중간 속도 및 빠른 속도의 음계와 비화성적인 패시지에 사용되며 무미건조한 소리를 투명하고 부드럽게 바꿀 때에도 사용된다.²⁵⁾ <악보5>

<악보5> Liszt, Consolation (제 1마디-제 3마디)²⁶⁾



③ 1/2 페달(50% 페달)

1/4페달보다 많은 진동과 반향을 허용하는 기법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는 화음에도 불구하고 작곡자가 의도하는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할 때나, 다른 악기의 음색을 연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또한 스타카토나 페달 없이 연주될 때 생기는 짧고 메마른 느낌을 줄여주며, 긴 음표나 느란 템포에 있어서의 스타카토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²⁷⁾ <악보6>

<악보6> Beethoven, Fur Elise (제 81마디-제 86마디)²⁸⁾



50% released damper sound

④ 3/4 페달(75% 페달)

완전(full) 페달을 사용했을 때와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으로 이 페달링은

25) Joseph Banowetz(2004), 전계서, p.97
 26)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97), 전계서, p.116
 27) 이선화(2007), “피아노 페달의 기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p.18
 28)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97), 전계서, p.16

풍성한 공명효과를 내면서도 음향이 매우 투명하고 선명하게 반영되므로 대단한 광채를 띠게 한다.²⁹⁾ <악보7>

<악보 7> Lange, Blumenlied (제 27마디-29마디)³⁰⁾



2) 소스테누토 페달

소스테누토 페달은 3개의 페달 중 가운데에 위치하며 원하는 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건반의 한 음을 누른 다음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으면 그 음의 댐퍼만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손가락은 다음 음을 계속 소리 내는 데도 그 음은 지속될 수 있어 오르간 포인트 페달이라고도 불린다. 이 페달을 사용함으로써 훌륭한 화성적 빛깔의 대담한 혼합음을 가능케 하였다.³¹⁾

소스테누토 페달 효과는 보다 낮은음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음색을 보다 순수하게 만드는 필터 영향을 하는 이 페달은 배음(over tone)의 사용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악보 8>은 베이스의 페달 포인트를 유지하는 법으로 화음들이 변화하는 동안 가장 아래에 있는 페달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 손가락만으로 계속 잡을 수 없는 긴 음의 음들에 사용할 수 있다.

29) Joseph Banowetz(2004), 전게서, p.102

30)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97), 전게서, p.46

31) 송정이(2001), 전게서, p.51

<악보8> Debussy, 'Clair de lune' Suite "Bergamasque" (제 15마디-제17마디)

↓
sostenuto pedal

많은 연주자들이 이 페달의 기능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스테누토 페달은 충분히 효과적이고 매력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방법은 다른 페달에 비해 훈련이 요구된다.

첫째, 연주자는 소스테누토 페달을 적용하고자 하는 음들을 손가락으로 잘 잡고 있다가 페달을 밟는 순간에 손을 떼어도 좋다. 모든 그랜드 피아노에서 소스테누토 페달은 댐퍼들과 연결된 현들로부터 올라온 댐퍼들을 잡는다. 만일 소스테누토 페달로 잡은 음이나 화음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이 페달을 새로 바꿀 필요는 없다.

둘째, 연주자는 소스테누토 페달로 어떤 음들을 잡을 때 오른쪽 페달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으면 모든 댐퍼들이 다 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고 난 후에 연주자는 오른쪽 페달을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소스테누토 페달로 잡은 음들은 오른쪽 페달을 바꾸어 밟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소스테누토 페달을 사용할 동안은 이 페달을 완전히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이 페달을 놓아주면 원하지도 않는 소리를 즉각적으로 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³²⁾

3) 소프트 페달

소프트 페달은 피아노에 부착된 세 개의 페달 중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것으로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각 건반의 3개의 현 중 2개의 현만을 치게 된다. 그러면서 음량이 감소되는 것인데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보다 큰 변화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32) Joseph Banowetz(2004), 전제서, p.107

다른 두 페달과는 달리 소프트 페달은 음을 치기 직전에 미리 눌러 준다. 해머가 현을 때리는 순간 이미 피아노 내부 전체가 옮겨진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연주를 시작할 때 해머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³³⁾

다음은 소프트 페달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흐린 음질 또는 안개속의 음질 색깔을 표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둘째, 순수한 에코(echo)효과를 내고자 할 때 바람직하다. 셋째, 약간의 침울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나 신비로운 정경, 인상적인 장면 등을 표현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준다. 넷째 디미누엔도 효과를 높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다섯째, 손은 크게 주의하지 않아도 소프트 페달을 밟으면 어느 정도 여린음과 묘한 음빛깔이 표출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비주제적, 비선율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작곡가가 원하는 경우나 반복될 경우에 멜로디가 아니면서 여린 부분에서 연주자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음색을 창출하여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상의 여섯 가지 경우와 같이 소프트 페달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주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연주자는 자신의 음악적 감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³⁴⁾

<악보9> Michaelis, Die Schmied im Walde (제 16마디-제 19마디)³⁵⁾



다음은 소프트 페달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곡의 순수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디미누엔도나 피아니시모 효과는 소프트 페달을 잘 판단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단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약음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곡의 주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 페달은 특수 효과의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할 때만 써야하며, 필연적인 음색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³⁶⁾

줄리어드 교수 마틴 케닌(Martin Canin) 역시 소프트 페달의 사용에 대해 “소프트 페달

33) 범영숙(2003),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육」, 삼호뮤직, p.120

34) 박영수(1990), 전게서, p.203,

35)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1997), 전게서, p.72

36) Algernon H. Lindo(1995), 「피아노 페달의 예술」, 장혜원 역, 음악춘추사, p.126

을 잘못 사용하면 다이내믹에 의한 음악적 표현을 제한하게 되므로 연주자는 먼저 손가락만으로 조절을 충분히 한 다음 예민한 판단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톤을 만들기 위하여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³⁷⁾



37) 송정이(2001), 전계서, p.51

Ⅲ. 초급단계 페달 지도방법

1. 입문 시기와 목표

피아노의 시작과 동시에 페달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다르나 초기 예비단계가 지난 뒤 즉 큰보표를 보고 칠 수 있을 때, 또한 화음을 손가락으로 칠 수 있을 때 페달의 감각을 다른 음악적 요소와 더불어서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페달 사용을 제시한 각 교재의 페달 입문 시기를 보면, 알프레드 교재에서는 6급 과정 중 1급 하권에서, 베스틴 교재에서는 4급 과정 중 1급에서, 하이비스 교재에서는 4권 과정 중 2권에서, 톰슨 교재는 5권 과정 중 2권에서 페달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기초 교재들은 초급 단계에서 페달사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기 예비단계가 지난 뒤에 교사의 주의 깊은 지도아래 분별력 있는 페달사용이 더해지면 오히려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페달의 입문 시기는 음악적 능력과 몸의 성장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필요한 음악적 능력이란 많은 어려움 없이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독보력과 화음의 변화 과정을 이해 파악할 수 있는 청각을 말한다.

학생이 악보를 제대로 읽지 못할 경우에 페달 교육을 시킨다면 악보 읽기에만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듣기 능력이 부족할 것이며, 들으면서 진행해야 하는 페달링 학습은 사실상 할 수 없다. 즉 독보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페달링 학습을 진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페달링 학습의 기본인 '피아노 소리 듣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음의 변화과정을 이해 파악할 수 있는 청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이렇게 페달의 입문시기는 신체적인 성장과 동시에 독보력과 청각능력이 발달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달링 학습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내는 '피아노 소리 듣기'이다. 청각이 우선이고 항상 듣는 능력이 페달링 기술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페달 사용은 악보상 페달링 표시보다 자신의 청각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해야 할 때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페달은 몇 분의 1초를 다루는 시점에서 밟아야 하고, 땀 때도 빠른 순간에 떼어 내야 한다. 그 예민한 순간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자신의 청각이다.

이렇게 페달은 당연히 발로 밟지만 그 동작을 결정하는 일은 예민한 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페달 지도에 있어서 교사는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청각적 발달의 일부분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가 페달링 하는 곳을 주입식으로 지시한다면 학습과정은 소리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는 단지 발을 움직이는 신체적인 운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기계적인 페달 사용은 학생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듣지 않고 연주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페달사용은 페달의 소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주 습관은 학생들이 피아노 연주를 할 때마다 페달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울림과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손의 기술적인 약점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어 오히려 좋은 연주에 방해요소가 되어서지게 된다.

그러므로 페달링 학습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내는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것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페달을 밟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의 초기부터 페달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소리의 변화에 민감한 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학습초기과정의 학생들에게 항상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페달 사용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페달의 기능을 통하여 다채로운 울림과 아름다운 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³⁸⁾

2. 교재

초급단계에서 페달 사용법 지도는 대부분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재의 페달 사용 방법을 분석하여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한 교재는 피아노 지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 베스틴 피아노 교본, 하이비스, 톱슨 피아노 교본을 대상으로 각 교재에서 페달사용 지도가 어느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적용 발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엘은 페달 지도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들의 지도내용만을 다루었다.

1)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

미국의 음악가인 팔머(Willard A. Palmer)와 맨우스(Morton Manus), 그리고 레스코드(Amando Vick Lethcod)에 의해 만들어진 알프레드 교재는 1981-1988년 Alfred Publishing Compand에서 출판되었다.

이 교본은 어린 학생들의 피아노 공부에 자발적인 학습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짧고 흥겨운 연습곡, 재미있는 가사, 원색 만화의 삽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각 급에 따라 레슨 교재, 이론교재, 테크닉교재, 청음교재, 초견교재, 음표학습교재, 환상연주곡집, 응용곡집, 고전명곡집, 명곡테마곡집, 한국동요곡집, 앙상블곡집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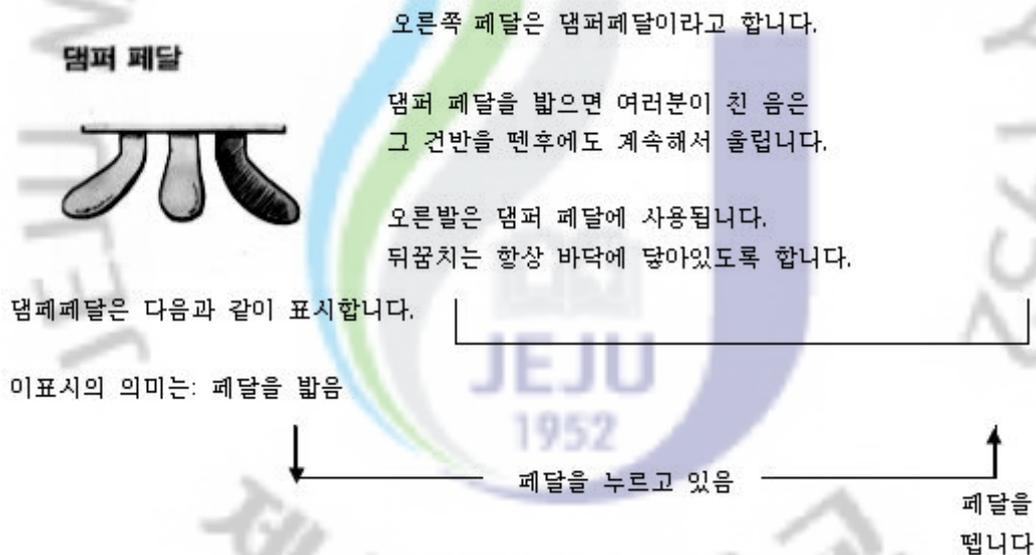
38) 상계서, p.114

이 교재들 중에서 레슨 교재에 페달사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프레드 교본은 페달사용을 독보지도와 병행하여 비교적 쉬운 곡 일 때 곡이 제목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피아노 페달의 감각을 습득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 알프레드는 3급까지가 초급과정으로서 제1급 하권에서 페달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페달 사용 시 음의 울림이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는지 주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급은 곡의 대조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페달사용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제3급에서는 레가토 페달 사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교재의 페달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른쪽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고 주시시킨 다음 이것의 울림 기능을 강조하였고 페달은 오른쪽 발로 밟으며 페달을 밟을 때 발뒤꿈치는 항상 바닥에 붙이고 발목을 움직여서 밟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림1>

<그림1> “페달표기방법 및 의미”, 제 1급 레슨교재, (하), P.26



알프레드 레슨교재 제 1급(하권)에서 페달을 처음으로 지시하고 있는데, 페달의 명칭과 표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올바른 페달 밟는 자세는 그림에 없으므로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 뒤 학생에게 주의 깊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39) Willard A. Palmer, Morton Manus, Amando Vick Lethcod (1994),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 제 1급 레슨교재(하), 편집국 역, 상지원, 표지면

<악보10> “페달의 연주” 제 1급 레슨교재 (하),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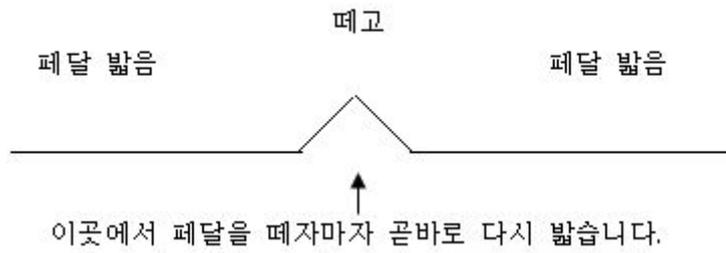
페달연주: 페달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귀로 확인해 보고 신중하게 연습한다. 페달을 발로 밟는 새로운 테크닉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변화되는 소리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가장 쉽게 페달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악보11> “하프의 노래” 제 1급 레슨교재(하), p.27

하프의 노래: 아르페지오로 된 같은 화음을 한 페달로 사용하는 연습이다.

제 2급에서는 제 1급과 마찬가지로 연결 페달이 아닌 한번에 누르고 떼는 형태의 페달 연습이 계속된다. 그리고 제 3급에서 연결 페달(레가토 페달)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연결 페달 표시와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2> “연결 페달 표시와 사용법” 제 3급 레슨교재, p.30



먼저 <보기1>과 같이 연결페달의 예비연습을 통해 연결페달을 연습해 본다. 레가토페달을 사용할 때 페달을 미리 밟고 시작하여서 화음을 칠 때에는 떼었다가 곧 다시 밟아야 한다. 즉 음을 치는 순간 곧바로 페달을 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1> “예비연습”, 제 3급 레슨교재. p.30



이와 같이 곡을 접하기 전에 예비연습을 통해 레가토 페달을 경험하게 한 다음 악보를 제시해 놓았다.

<악보12> “푸른 옷소매”, 제 3권 레슨교재, p.35



푸른 옷소매: 이 곡에서 화음이 바뀔 때마다 페달을 바꿔준다. 앞 박자의 음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 깊게 듣고 페달을 쓴다.

<악보13> “인터메쵸”, 제 3급 레슨교재, p.39



인터메쵸: 왼손 반주의 화음 변화가 있을 때마다 페달을 바꿔준다.

2) 베스틴 피아노 교본

베스틴 피아노 교본은 미국의 음악교육학자이며 피아니스트인 제임스 베스틴 (James Bastien)부부가 1963년에 만든 “Music Through the Piano”를 좀 더 발전시켜 만든 교본이다.

이 교본도 피아노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곡, 민속선율 음악, 팝 스타일 등과 편곡도 포함되어 알프레드 교재와 같이 초보자를 위해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

베스틴 피아노 교본은 초급 편부터 시작해서 제 4급편까지 5단계로 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피아노 교본, 테크닉 교본, 연주교본, 이론 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⁰⁾

이 교본들 중에서 피아노 교본에 페달사용방법이 제시되어있는데 피아노 교본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급에서 페달 사용방법을 지시하고 있는데 음의 울림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분위기에 해당하는 페달사용법이 알프레드 교본보다 일찍 나타난다. 2급에서는 리듬을 살려주는 페달법을 보여 주고 3급에서는 2급보다 큰 발전을 보이지 않는다. 4급에서는 알프레드 교본에 비해 늦게 레가토 페달사용법을 보이고 있다.

이 교본의 페달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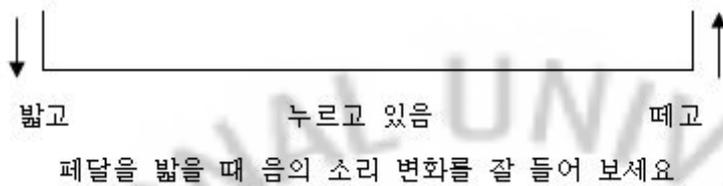
베스틴 교본에서도 알프레드 교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른쪽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고 주지시킨 다음 소리를 오래 끌어주는 지속 기능을 소개하였다. 페달 밟는 방법으로는 댐퍼

40) James Bastien(1998), 「베스틴 피아노 교본」, 피아노 교본 1급, 편집국 역, 음악춘추사, 표지면

페달을 오른쪽으로 밟는다는 것과 발뒤꿈치는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다음과 같이 페달 표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3> “페달 표기 방법 및 사용방법” 제1급 피아노 교본, p.34

데미페달은 오른발로 밟습니다. 발뒤꿈치는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악보14> “페달 공부”, 제 1급 피아노교본, p.34

페달 밟기 공부: 페달을 사용할 때의 음의 소리를 잘 들어본다.

<악보15> “동트기 전”, 제 1급 피아노 교본, p.35

동트기 전: 한 프레이즈를 한 페달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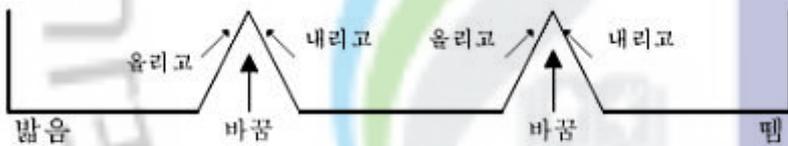
알프레드 피아노 교본에서는 쉼표까지 페달을 사용하도록 한 것에 비하여 베스틴 피아노 교본에서는 쉼표에서 손을 뺄과 동시에 페달도 떼도록 했다는 점이 다르다. 알프레드 교본에서는 페달의 울림기능을 학생이 들으면서 깨닫도록 하였고 베스틴 교본에서는 페달사용 시와 미사용 시의 음색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급은 1급의 연장선으로 페달을 한번 누르고 떼는 동시페달을 보여주고 3급에서는 2급보다 큰 발전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4급에서는 연결 페달 방법을 다음과 같은 기호의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연결 페달표시 법과 발로만 연습하는 연결 페달 방법, 손과 발을 같이 연습하는 연결페달 연습방법을 차례로 제시해 놓았다.

<그림4> “연결페달 표시법”, 제4급 피아노 교본, p.6



<그림5> “연결페달 바꾸는 연습방법”, 제 4급 피아노 교본,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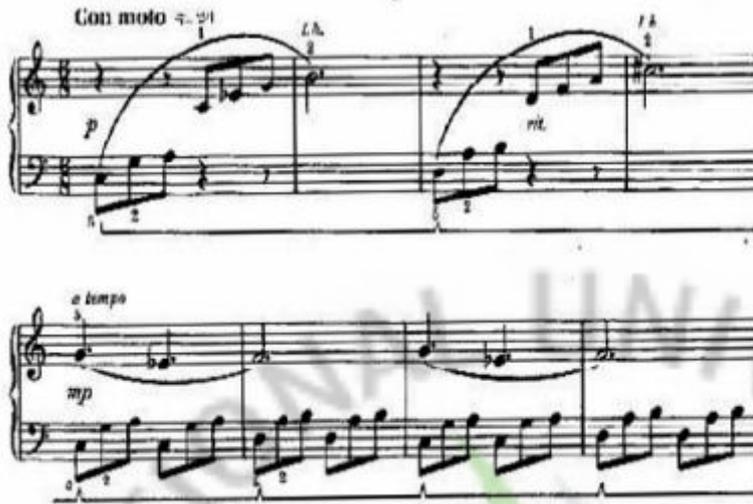
<보기2> “연결 페달 연습방법”, 제 4급 피아노 교본, p.6

음계를 계속하여 연주

음계를 계속 올라가며 연주

레가토 페달을 접하기 전에 예비연습을 통해 사용방법을 익히게 한 후 악보에서 학생이 직접 레가토편페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았다.

<악보16> “숨사탕”, 제 4급 피아노 교재, p.8



숨사탕: 화음이 바뀔 때마다 연결 페달을 사용하는 이때 앞의 음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페달을 사용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급에서는 연결 페달 사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곡의 분위기에 따른 다양한 페달 사용법의 진전은 크게 보이고 있지 않는다. 1급에서는 페달을 소개하고 곡의 분위기를 표현한 페달법을 다른 교재에 비해 빠르게 보여주고 있고, 2급에서는 리듬을 살려주는 페달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3급에서는 2급보다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교재에 비해 베스트 피아노 교본은 1, 2급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페달법을 선보였으나 3급과 4급의 페달법은 다른 교재의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

3) 하이비스

하이비스는 이데유미꼬, 송지혜, 정수임 그리고 세광 편집 기획실이 공저한 교본이다.

이 교본에서는 어린이들이 접해온 친숙한 곡들을 통해 피아노의 기교와 음악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 음악 이론과 음악적인 학습 내용을 단계적으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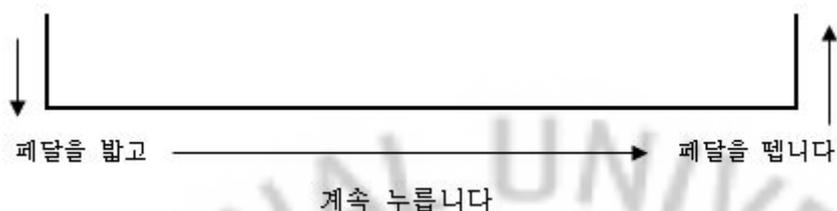
특히, 소리와 리듬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주고자 했으며 손목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음색의 터치를 익히도록 하였다. 1권부터 4권까지 전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교본이다.⁴¹⁾ 이 교본에서는 2권에서 동시페달을 제시하고 있으며 페달 사용 시와 미사용 시의 소리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전 4권 안에는 동시페달만 제시되어 있다.

이 교본의 페달 지도내용을 살펴보면 오른쪽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고 소개하고 이것이 소

41) 이데유미꼬 외(1996), 「하이비스」, 제 2권, 세광음악출판사, p.2

리의 울림을 끌어준다고 설명하여 학생이 페달의 울림과 지속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페달 표기방법과 그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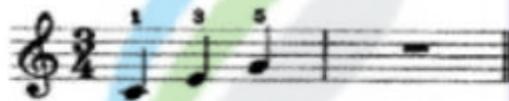
<그림6> “ 페달표기방법과 사용법” 하이비스 2권,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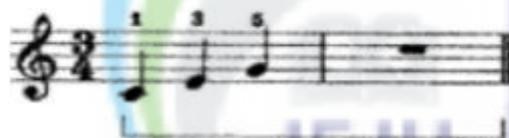
오른발로 밟고 발의 앞부분을 사용하며 발뒤꿈치는 바닥에 닿도록 한다고 설명되어져 있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귀로 페달사용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은 멜로디의 간단한 아르페지오를 한번은 페달 없이 쳐보고 한번은 페달을 사용하면서 쳐보도록 하였다.

<보기3> “페달 사용여부에 따른 소리의 차이(아르페지오)”, 하이비스 2권, p.51

* 페달없이



* 댐퍼 페달을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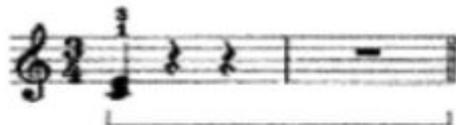
화음으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쳐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기4> “ 페달 사용여부에 따른 소리의 차이(화음)”, 하이비스 2권, p.51

* 페달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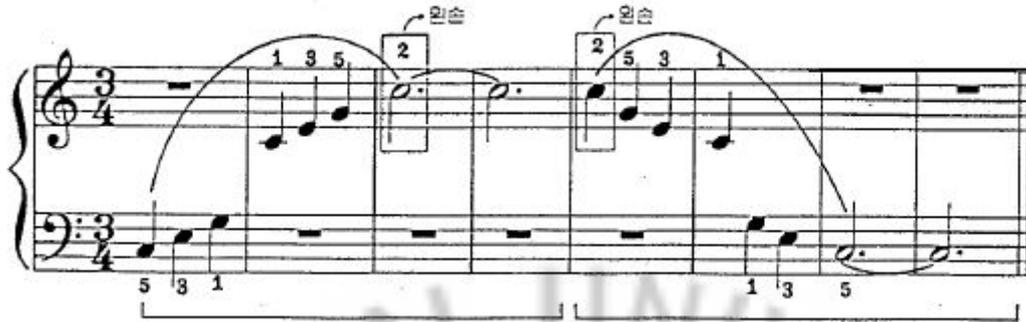


* 댐퍼 페달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페달의 기능을 자신의 청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뒤에는 하나의 아르페지오를 양손으로 번갈아 치면서 페달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악보17> “동시페달(아르페지오)” 하이비스, 2권 , p.51



4) 톰슨 피아노 교본

전 5권으로 되어있는 톰슨 교본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본 가운데 하나이고, 5권의외 기술용, 이론용, 보조용, 예술곡집, 성인용 교본만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교본들에 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⁴²⁾

이 교본에서는 2권에 페달 사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 페달과 레가토 페달(이 교재에서는 싱크로페이트드 페달의 이름으로 제시)을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오른쪽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 부른다고 제시한 다음, 이것을 발로 밟으면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하는 댐퍼가 위로 올라가서 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해머가 친 모든 현이 진동하는 상태를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이 교재에서는 왼쪽 페달과 가운데 페달의 이름과 기능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댐퍼 페달의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 페달을 배우는 학생의 경우 음을 길게 늘이는 지속의 기능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페달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7> “페달방법 및 사용방법”, 톰슨 피아노 교본, 2권,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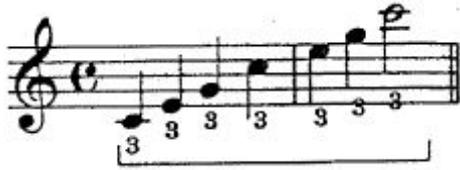
여기서 누른다.

여기서 떼낸다.

그리고 학생이 아르페지오를 3번 손가락만 사용하여 페달링 하면서 음의 지속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기15>

42) Thompson John(1997), 「톰슨 피아노 교본」, 제 2권, 편집국 역, 세광음악출판사, p.4

<보기5> “페달의 지속 기능” 톰슨 피아노 교본, 2권, p.14



또 같은 화음에서 페달을 사용하였을 때와 페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듣도록 하여서 학생이 페달링 할 때 충분한 주의를 하도록 하였다.

<보기6>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페달사용 시의 차이”, 톰슨 피아노 교본 2권, p.15



협화음을 페달링 했을 때와 불협화음을 페달링 했을 때의 차이를 듣도록 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음색에 대한 이해와 함께 페달링 할 때의 주의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다른 교재에서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음의 “지속”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싱크 페이티드 페달링이 설명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건반을 누른 직후에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 페달의 연습을 위하여 제시된 악보는 다음과 같다.

<보기7> “오른손과 싱크페이티드 페달 연습”, 톰슨 피아노 교본 2권, p.15



지도 방법은 하나, 두울, 세엳, 네엳과 같이 세어서 페달을 ‘나’, ‘울’, ‘엳’, ‘엳’ 할 때 밟고 숫자의 첫 음을 쉰 때는 페달을 뗀다.

이방법이 익혀지고 나면, 하나, 두울과 같이 세면서 페달은 각 마디의 ‘하나’ 바로 뒤에 밟고 각 마디에 ‘하나’라고 말함과 동시에 페달을 올린다. 초보 단계에서의 페달링은 대체로 낮은 음을 끄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래 악보와 같은 방법으로 왼손에만 페달링을 붙여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때 까지 연습시킬 것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8> “왼손과 싱크로페이트드 페달 연습”, 톰슨 피아노 교본 2권, p.15



이상으로 초급교재의 페달 사용방법을 살펴본 결과 처음에는 코드를 연주함과 동시에 페달을 밟아서 페달의 지속 또는 울림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처음 페달을 접할 때 동시페달과 레가토 페달의 순서로 지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준비와 기본학습의 두 단계로 나누어 페달링 학습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3. 학습준비

페달링 표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테일러(Taylor)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표기법은 테일러(Colin Taylor 1864-1932 영국)가 고안한 페달링 기호이며, 읽기가 간단하고 페달을 밟고 때는 위치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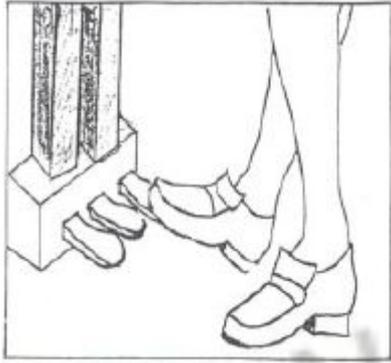
테일러의 페달링 표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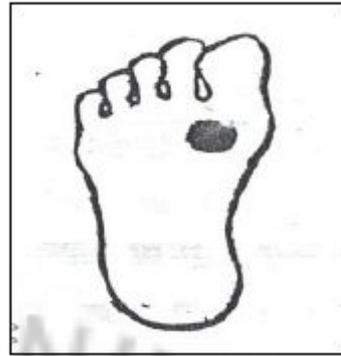
1) 페달 사용을 위한 기본자세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에게 제일 먼저 지도하는 것은 올바른 손의 모양과 바른 자세이다. 교재 서문에서도 역시 손의 모양과 바른 자세에 대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좋은 연주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페달 역시 발에 의한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페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의 올바른 자세가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페달을 지도함에 있어 먼저 발의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림8> 페달을 밟는 자세



<그림9> 페달 사용 할 때의 발의 위치⁴³⁾

올바른 자세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이 피아노 의자의 앞쪽 1/3 지점에 바르게 앉게 한다. 그 다음 오른발의 평평한 부분을 댄퍼 페달 위에 안정되게 올려놓고 발뒤꿈치는 마룻바닥에 닿게 하여 학생의 체중이 의자와 발뒤꿈치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한다.⁴⁴⁾

발의 평평한 부분이란 발바닥 중에서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직전의 넓은 부분, 즉 까치발을 들고 설 때 바닥에 닿는 발바닥의 앞쪽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페달을 밟을 때 발의 평평한 부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페달을 발가락으로 누른다거나 발바닥 중심부, 또는 측면에서 누르게 되면 민첩하고 민감해야 하는 발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⁴⁵⁾

또한 발목의 힘을 빼고 발이 항상 페달에 닿을 수 있도록 하면서 페달의 깊이 조절에 대한 감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한다. 만약 발이 너무 높게 들어가게 되면 페달을 밟을 때마다 시끄럽게 밟는 소리가 나게 되고, 또 너무 갑자기 페달을 올라오게 하여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들은 피아노 연주 시에 소음의 원인이 되어 좋은 연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⁴⁶⁾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에게 발목의 힘을 빼서 부드럽게 하도록 하여 페달을 누르고 떼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반복되는 피아노 레슨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는 학생에게 페달 밟은 바른 자세를 지도 한 후에도 학생이 발뒤꿈치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또는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전체 또는 발가락 끝으로 누르지는 않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주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43) 홍은경(2004) “페달의 모든 것-페달의 역사와 종류, 원리, 메카니즘”, 「피아노 음악」, 음연, 11월호, p.154

44) Tomas Mark(2004), 「피아노와 바디맵핑」, 문호선 역, 중앙아트, p.68

45) James W. Bastin(1981), 「피아노 교수법」, 정정식 역, 세광출판사, p.180

46) Joan Last(1995), 「영피아니스트 교수법」, 김수경 역, 음악춘추사, p.80

2) 예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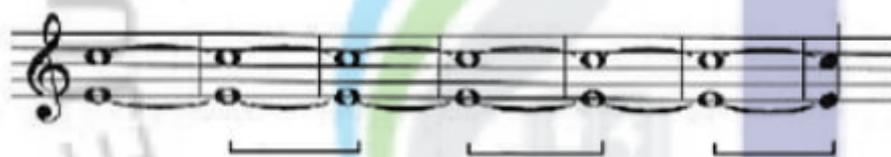
페달링 학습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내는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만큼 청각이 우선이고 페달링 기술보다 듣는 능력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페달은 어느 시점에서 더 빨리 밟고, 빠른 순간 떼어 내야 하는지 그 예민한 순간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자신의 청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청각을 훈련하기 위해 예비단계에서는 페달을 사용 할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톤의 질과 음이 지속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학생에게 들려주어 페달사용의 효과에 대해 알려준다.

교사는 예비연습<보기9-11>을 연주할 때 한번은 페달 없이 건반을 누르고, 다른 한번은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 페달은 동시 페달로 이루어 져야 한다.

먼저 <보기9>의 페달지시에 따라 페달을 사용 한다. 페달이 바뀔 때마다 학생에게 페달의 지속기능에 대해 설명하되 처음 눌렀던 화음 안에 다른 배음들이 공명 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기9> 페달 사용 시와 미사용 시의 차이⁴⁷⁾



예민한 귀를 가진 학생은 페달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이 더 쉽게 사라지고 페달을 사용하면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음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페달 사용 시 본래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울린다는 것과 페달을 떼었을 때 다른 울리던 소리가 없어지고 본래 음이 앓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리들은 댐퍼 페달의 지속 효과 때문에 나타는 현상임을 확인시킨다. 소리의 차이를 느끼고 나면 이번엔 교사가 건반을 담당하고 학생이 페달을 밟아 봄으로서 페달의 효과를 실감하게 한다.

<보기10>에서는 손으로 음을 연결 할 수 없을 때 페달을 사용하여 소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47) 상계서, P.79

<보기10> 페달의 연결기능⁴⁸⁾



페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음표의 음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다가 페달을 사용하게 되면 각 음표의 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된다. 즉 페달 사용에 의해서 손으로 연결할 수 없는 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시킨다. 교사가 건반을 담당하고 학생이 페달을 밟아본다.

<보기11> 은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동시에 페달을 밟아 주어 마디가 끝날 때 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원래 코드 소리가 작게나마 들린다. 이때 학생에게 원래의 코드소리를 주의 깊게 들도록 하고 아르페지오 음들의 공명에 의해서 음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보기11> 페달의 지속 기능⁴⁹⁾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동안 페달을 누르고 있으면 낮은음자리부터 높은음자리 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르페지오가 끝났을 때 페달을 유지하고 있으면 원래의 화음소리가 작게나마 들리는데 이것으로 현이 아르페지오 음들의 공명에 의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페달은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불협화음에서의 페달이 사용되었을 때에도 현이 아르페지오 음들의 공명에 의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공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교사가 건반을 담당하고 학생이 페달을 밟고 소리의 변화를 느껴보게 한다.

48) 상계서, P.79

49) 상계서, P.79

4. 기본학습

페달링 기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며 많이 쓰이는 주법으로는 동시 페달과 레가토 페달이 있다. 이 두 가지 주법은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의 페달링이며 타건과 페달을 밟을 타이밍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타건과 동시에 페달을 밟는 동작, 건반을 누른 직후 또는 건반에서 손을 떼기 직전에 밟는 동작이다. 이 수준에서 페달을 밟는 깊이는 완전히 밟는 풀 페달(full pedal)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적절하게 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동시 페달

동시 페달은 타건과 동시에 페달을 밟는 기법으로 리듬 페달이라고도 한다.

예비연습을 통하여 교사는 학생이 건반을 누르면서 동시에 페달을 밟도록 지도한다. 페달 표시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음이 시작될 때에는 페달을 떼었다가 다시 밟도록 한다. 이때 학생은 페달을 떼었을 때 소리가 완전히 끊어진 걸 듣고 난 뒤 그 다음 건반을 칠 때 다시 페달을 밟는다. <보기12>

<보기12> 화음 연습곡

A.



B.



위의 악보에서 A, B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페달의 음이 지속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보기13> 화음 연습곡50)



화음을 누름과 동시에 페달을 밟아 톤이 더욱 풍부해 지고, 손이 연결하지 못하는 소리를 페달이 연결하는 효과를 알 수 있는 연습곡이다.

<보기14> 아르페지오 연습곡



학생은 페달의 느낌에 익숙해져야 하고 교사는 페달을 조절하기 위한 적당한 만큼의 움직임이 맞춰질 수 있게 지도한다.

예비연습을 통해 리듬 페달을 밟는 동작에 익숙해지면 악곡에 응용하여 연습시킨다.

<악보18>

50) 상계서, p.81

<악보18> “신비한 바다속” 51)

5 3 1
mp 바닷속 깊숙히 들어가 보면
 1 3 5 2 5 3 1 2
 오른손

5
 신비한 세상이 펼쳐져요
 1 1 2 4 5
 오른손

처음으로 페달링을 사용하게 할 때는 어떤 뚜렷한 효과를 내기 위한 아르페지오나 화음에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다.

<악보19> 비엔나 왈츠52)

mf-mp
 오른손

오른손이 세박자를 누르는 동안에 소리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왼손의 리듬을 강조하기 위해서 페달을 사용한다.

51) 이태유미꼬 외(1996). 전게서., p.56

52) James Bastien(1998), 전게서., p.31

2) 레가토 페달

가장 자주 쓰이는 페달링 기법 중 하나로 두음이나 두 화음을 레가토로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손으로 먼저 어떤 음을 연주한 직후 페달을 밟아 주고, 밟고 있는 페달을 민첩하게 떼었다 또 다시 밟아야하는 기법으로 순발력과 예민한 동작이 필요하고 동시에 청각을 집중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레가토 페달은 소리가 나는 순간, 사라지는 순간을 잘 이해하며 페달을 떼었다 밟았다 해야 한다. 페달을 바꾸는 타이밍이 늦으면 음이 끊어지고 이르면 깨끗하지 않다. 이 기능을 다음과 같은 예비 연습을 통해 학생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보기15>

건반에서 음을 누르고 쉼표에서 손가락을 떼어내는 순간과 동시에 페달을 밟아서 소리가 남는지, 사라지는지를 확인시키는 연습이다. 어떤 때는 소리가 남고 어떤 때는 소리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페달을 밟는 속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보기15> 페달을 바꾸는 타이밍을 확인하는 연습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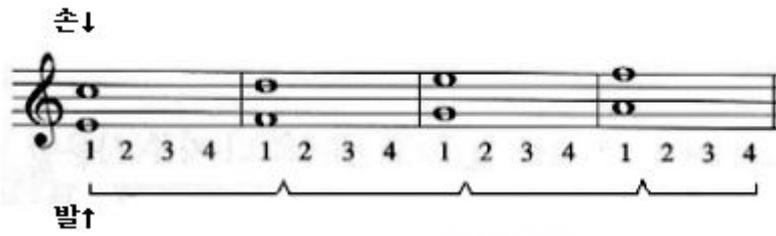
다음 연습 역시 마찬가지로 귀를 집중시키는 연습이다. <보기16> 타건과 페달을 밟을 타이밍을 확인해야 한다. 세가지 페달링 표시를 그대로 페달을 밟아보고 '라'음의 타건과 동시에 페달을 밟으면 '솔'음이 같이 울려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과 늦으면 '라' 음을 페달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깨끗한 '라'음을 울릴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킨다.

<보기16> 페달을 바꾸는 타이밍을 확인 하는 연습2



다음은 레카토 페달의 예비연습이다. 음을 치는 순간에 페달을 밟고 그 다음 음을 치는 순간에 밟고 있는 페달을 떼었다가 다시 밟아야하는 동작으로 민감한 페달링이 요구된다. 음이 끊어지지 않고 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기17> 레가토 페달의 예비연습 <화음연습곡1>⁵³⁾



학생은 첫째 박자를 쉼 때 음을 연주하면서 페달을 밟는다. 넷째 박까지 페달로 인해 지속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다음 마디 첫째 박자 페달새로운 음을 연주하고 그러면서 정확히 동시에 페달을 떼고 난 즉시 다시 밟아준다.

<보기18> 레가토 페달의 예비연습 <화음연습곡2>⁵⁴⁾



학생은 쉬운 코드를 반복하면서 페달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익숙해질 때 까지 연습시킨다.

<보기19> 레가토 페달의 예비연습 2



첫째 박자에서 건반을 누름과 동시에 페달을 밟고 둘째 박에서 새로운 음을 치는 순간에 밟고 있는 페달을 떼었다고 다시 밟는다. 소리가 섞이거나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시킨다.

펼침 화음의 연주에도 레가토 페달을 사용한다. 이유는 페달의 음향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발의 동작은 페달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듣는 것만이 페달을 바꾸는 확실한 순간을 결정할 수 있다.<보기20>

53) Joan Last(1995), 전계서, P.83

54) 상계서, p.83

<보기20> 펼침화음에 레가토 페달의 사용연습



예비연습을 통해 레가토 페달을 밟는 동작에 익숙해진 다음과정은 곡에 적용한 레가토 페달의 연습이다. 예비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악곡에 응용한다. <악보26>

<악보20> 교회 안에서⁵⁵⁾



학생은 쉬운 코드를 반복하면서 페달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동시 페달과 레가토 페달은 페달링 기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주법이다. 타건과 페달을 밟을 타이밍의 차이를 이해시키면서 발의 동작부터 연습시키는 것이 좋다. 또 페달링 학습의 절대 조건인 ‘피아노 소리 듣기’에 주의하여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느린 템포로 시작하여 페달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Thompson John(1997), 전제서, p.20

IV. 실제 수업 지도방안

1. 수업내용

실제 수업지도안을 대상으로 한 학생은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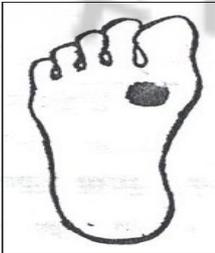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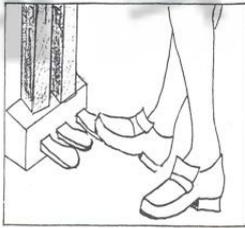
다섯 학생 모두 초급단계로 비슷한 수준이고 페달 학습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이다.

수업 내용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페달 지도 방법을 가지고 1차시부터 8차시까지 나누어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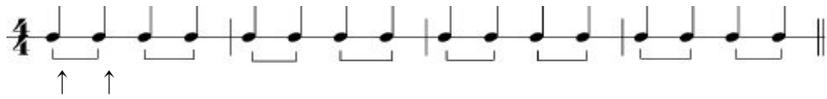
1-3차시까지는 페달을 익히는 예비단계로 발의 훈련과 청각훈련, 동시페달을 익히는 학습을 하였고, 4-5차시는 실제 곡에 적용시켜 동시페달을 학습하였다.

6차시는 레가토 페달을 익히기 위한 예비단계를 학습하고, 7-8차시는 레가토 페달을 곡에 적용시켜 학습하였다.

2. 수업 지도방안

학습단계	페달의 바른 자세와 발의 감각을 익히는 예비단계	1차시
학습목표	1.페달 사용을 위한 올바른 기본자세를 학습한다. 2.발만으로 페달의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곡을 연주하기에 앞서 페달의 감각을 익힌다.	
학습내용	지도방법 및 학습내용	
발의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자세를 익히기 위한 첫 단계로 학생은 피아노 의자의 앞쪽 1/3지점에 바르게 앉는다. • 오른발의 평평한 부분을 댄퍼 페달 위에 안정되게 올려놓고 발 뒤꿈치는 바닥에 닿게 하여 바르게 앉는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발바닥이 페달에 닿는 부분> <페달을 밟는 자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시범으로 바른 자세를 보인 뒤 학생이 다시 한번 정확한 자세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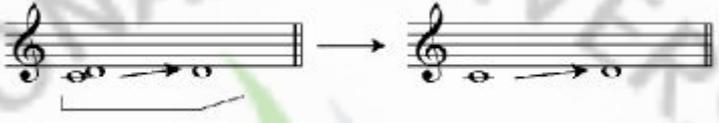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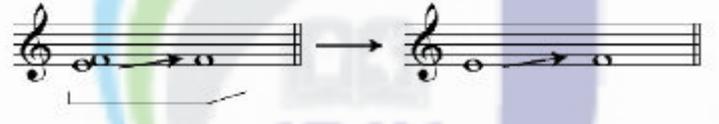
<p>발의 감각 익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의 바른 자세를 익히고 난뒤 페달의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한다. • 손은 건반위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페달에 얹는다. -그때 발뒤꿈치는 반드시 바닥에 붙인다. • 댐퍼 페달을 완전히 바닥까지 밟는다. • 서서히 힘을 빼서 페달을 원위치로 돌려놓되 자유롭게 확 들어 올리지 말고 발에 힘을 서서히 풀면서 스프링의 저항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발바닥이 페달의 표면과 떨어지면 안된다. • 페달을 1/2 만큼 밟는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밟는다. • 완전히 페달이 밟아진 상태에서 1/2만 들어 올린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들어 올린다. • 학생은 눈으로 보지 않고 느낌으로 페달 깊이의 중간 지점이 어디쯤인지 알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게 한다. <div data-bbox="422 1008 1316 1377" style="text-align: center;"> <p><발의 움직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때 교사는 항상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았는지, 발을 페달위에 정확하게 밟았는지 확인한다. • 교사는 발목의 힘을 빼서 부드럽게 페달을 밟고 떼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p>페달의 감각 익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의 감각을 익히고 나면 다음 악보를 보며 박자를 세면서 페달을 밟아 보는 연습을 한다. • 손은 건반위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발만 페달에 얹고, 오직 발과 페달의 감각을 익히기 위한 훈련으로 발의 감각에 집중한다. • 이때 교사는 4/4박자에 맞춰 천천히 박자를 세준다. 하나 둘 셋 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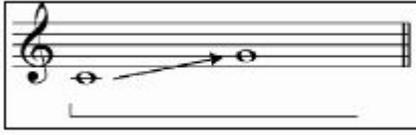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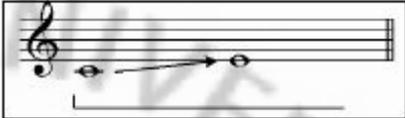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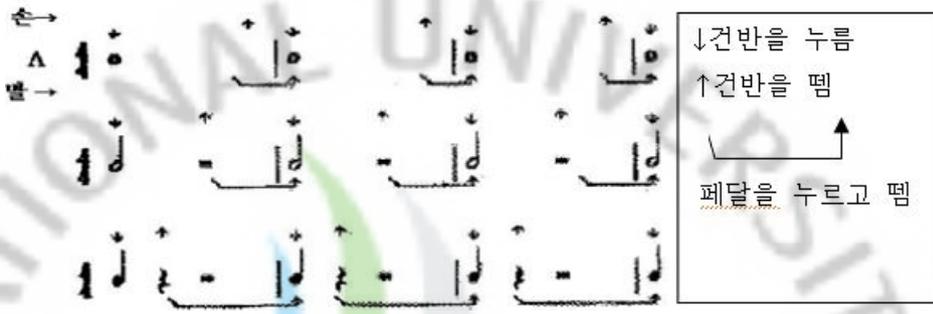
페달 밟는다. 페달을 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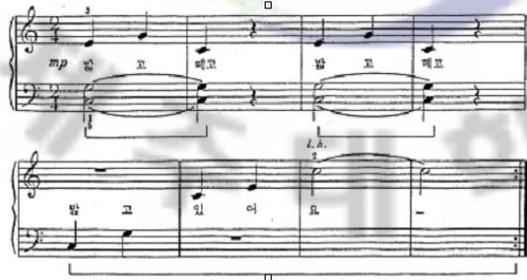


- 교사는 바른 자세로 페달을 밟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박자를 천천히 세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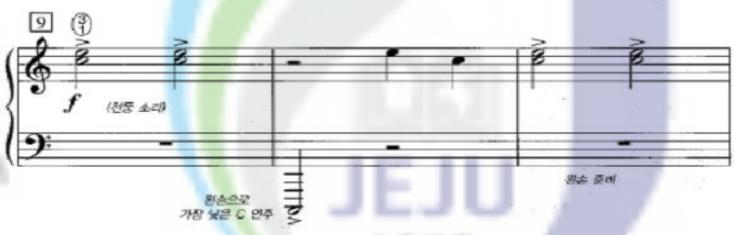
학습단계	청각 훈련을 통해 페달링을 익히는 예비단계	2차시
학습목표	1.음정 듣기를 통해 음의 기본이 되는 소리의 변화를 체험한다. 2.화음 듣기를 통하여 페달을 밟고 떼는 타이밍을 연습한다.	
학습내용	지도방법 및 학습내용	
음정 듣기 연습	<p>- 온음과 반음 듣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장조 (C Major) 다섯 손가락 패턴을 쳐보며 온음의 차이를 인지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을 밟고 C음과 D 음을 동시에 연주하여 불협 음정을 듣게 한다. • 페달을 서서히 들어 올리면서 C음도 함께 떼어 D 음으로 해결되는 것을 듣게 한다. • C음에서 D음으로의 진행을 들으면서 쳐본다. • 반음 듣기 훈련도 온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험 시킨다.  <p>-도약진행 듣기(8도, 5도, 4도, 3도 음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도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C'음의 울림을 듣는다. • 풍부하게 들렸던 C'음의 울림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을 듣는다. • 이때 아래의 C음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게 하고, 교사는 C'음과 C음 사이의 반음 진행을 노래로 유도한다. • C'음과 C음을 노래하게 하고 피아노에서 쳐보게 한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5도, 4도, 3도의 음정관계도 체험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도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도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도음정 
<p>화음 듣기</p>	<p>-화음 듣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을 귀로 밟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으로 교사가 건반을 담당하고 학생이 페달을 담당한다. • 학생이 직접 코드를 치지 않기 때문 오로지 소리와 발동작에만 집중하게 할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의자에 앉아 학생은 손을 내려놓고 발은 페달에 올려 놓고, 교사는 건반위에 손을 올려놓는다. • 교사가 첫째 박자에 건반을 누르는 것과 동시에 학생도 첫째 박자에서 페달을 함께 밟는다. • 교사가 둘째 박자에서 건반을 누르고 있던 손을 떼면 학생은 주의 깊게 듣는다. • 셋째 박자에서 페달만으로 인해 지속되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 • 다음번 마디 첫째 박자에서 교사는 다시 건반을 누름과 동시에 학생은 정확하게 페달을 떼는다. <p>-이때 학생은 혼탁한 음이 나지 않게 깨끗이 연결해 들리도록 전 신경을 귀에 집중시키고 페달을 바꿔 밟는다.</p>

학습단계	손과 발의 동시훈련을 통한 동시페달을 위한 예비 단계	3차시
학습목표	1. 발의 감각과 청각훈련을 기본으로 손과 함께 페달을 밟을 수 있다. 2. 동시페달의 예비단계로 동시페달을 정확하게 학습한다.	
학습내용	지도방법 및 학습내용	
손과 발의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손가락으로 음계를 확장시켜 가면서 댐퍼 페달의 사용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부분에 있는 화살표에서 아래쪽을 지시한 것은 건반을 누르라는 뜻이고, 위쪽을 지시하는 화살표는 건반을 떼라는 표시이다. 아래에 있는 사선은 페달을 누르라는 뜻이고, 위쪽을 지시하는 화살표는 페달을 떼라는 표시이다. • 지시한 음들을 4분음표 당 MM=100의 속도로 연주한다. • 페달을 다시 누를 때까지 건반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가 다음 음표의 연주에서 페달을 빠르게 떼면서 소리를 들어본다. • 제시한 느린 템포로 연습한 다음 속도를 증가 시켜서 자연스러워 질 때까지 충분한 연습을 한다. -이때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학생은 페달 사용에 대한 감각을 터득한다. • 학생이 힘들어 할 경우 교사가 페달을 밟고 교사의 발 위에 학생의 발을 얹어서 페달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시페달의 예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로 동시페달을 설명한다. • 교사가 먼저 ‘비행기, 나비야’ 와 같은 동요를 처음엔 페달없이 다음은 동시페달의 사용과 함께 화음 코드에 맞춰 들려준다. • 페달을 밟으면 소리가 커지고 풍부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며 흥미를 더해준다. • 학생은 간단한 예비연습을 통하여 동시페달을 훈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음연습곡 <p>A.</p>  <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B를 치고 난뒤 차이점을 말해본다 • 소리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경우 악보A가 음이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얘기해준다. • 학생은 다시 한번 소리의 차이를 생각하며 다시 쳐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페지오 연습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 없이 악보를 보며 천천히 쳐본다. • 악보를 자연스럽게 볼수 있게 되면 페달을 밟고 쳐본다 • 페달에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반복 연습한다.
동시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페달의 기능을 익히면서 천천히 음의 소리를 잘 들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 없이 악보를 보며 천천히 쳐본다. • 악보를 보고 난뒤 페달을 밟아본다. • 페달을 떼었을 때 소리가 완전히 끊어진걸 듣고 난뒤 다시 페달을 밟는 것에 주의하며 반복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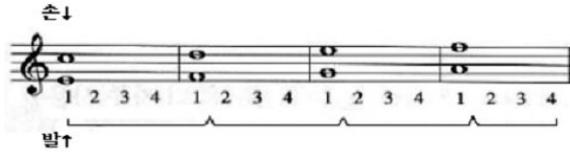
제제곡	시계 종소리(부록악보1), 토성의 폭풍(부록악보2)	4차시
학습목표	1. 연주곡을 통하여 동시페달의 기능을 학습한다.	
학습내용	지도방법 및 학습내용	
악보 보기	<p>-시계종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의 제목과 관련해 종소리의 울림에 대해 상상해본다. • 교사가 먼저 곡을 연주한다. • 상상하고 있던 느낌과 비교해 보며 듣는다. • 간단한 악보이므로 양손같이 학생은 게이름에 주의하여 쳐본다. • 10마디에서는 옥타브에 주의하여 쳐본다. 	
페달 밟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에서 지시한 것과 같이 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아보게 한다. • 1마디에서 페달을 밟을 때에는 타건과 동시에 페달을 밟는다. • 12마디에서 페달을 뗄 때에는 3박을 충분히 누르고 난 뒤 손과 함께 뗀다. • 9마디에서 12마디까지 진행되는 3도 음정이 3옥타브 위로 사라져 가는 종소리를 표현할 때 윗소리 E음의 울림을 조금 더 주의하여 들어본다. • 3옥타브 사이의 넓은 공간의 울림을 듣게 한다. • 마지막 12마디 불임줄에 의한 오른손 3도 음정의 긴 울림 안에 왼손 5도 음정이 섞이는 4성부의 울림을 듣게 한다. •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을 밟아보고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 밟아본다.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악보처럼 페달을 밟으면 3도 음정의 울림을 좀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처음부터 썸여림에 주의하여 연습한다. 	

<p>악보보기</p>	<p>-토성의 폭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음음계의 곡으로 온음을 학습한다. • 온음 진행 손의 자리를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음의 자리를 익히고 난후 악보를 보고 천천히 연습한다. • 자신이 연주하고 어떤 느낌인지 말해본다. • 교사가 페달을 밟고 연주한다. • 페달을 밟았을 때와 밟지 않았을 때의 곡의 차이를 말해본다.
<p>페달밟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고 연주한다. • 느낌을 말해본다. <p>-신비스러운 온음음계를, 페달을 사용함으로써 곡의 분위기에 맞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마디에 3도 음정을 천둥소리에 비유하며 악센트로 연주하고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곡에서 사용되는 페달은 어렵지 않기 때문 최대한 곡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집중하며 연주한다. • 자신만의 폭풍 소리를 상상하며 온음 진행을 연주한다.

제제곡	스페인의 경마병(부록악보3), 물결과 바람(부록악보4)	5차시
학습목표	1. 연주곡을 통하여 동시페달의 기능을 학습한다.	
학습내용	지도방법 및 학습내용	
악보보기	<p>-스페인의 경마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박자에 주의하여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치게 한다. • 양손을 같이 치게 한다. -스타카토와 레가토가 확실히 구별될수 있게 주의한다. 	
페달밟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약을 위한 페달사용에 주의하며 지도한다. • 페달지시가 있는 부분만(9-16마디) 페달을 밟고 연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을 밟고 떼는데 정확하게 사용한다. • 페달링이 익숙해지면 썸여림을 지키며 연습한다. • 9-10마디는 포르테(f), 11-12마디는 피아노(p)로 썸여림의 차이를 확실히 한다. • 13마디는 크레센도 효과를 위해 페달을 사용함으로써 악상을 잘 표현해본다. •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한다. -곡 앞의 스타가토 부분과 9마디에서 시작되는 아르페지오 부분을 확실히 구별하고 페달사용으로 인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본다. • ♩=100으로 시작하여 126까지 연습해 본다. 	
악보보기	<p>-물결과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리듬에 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멜로디 선율의 리듬치기를 하여 곡의 리듬을 익힌다. •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연습 후 양손 같이 연습한다.
<p>페달밟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위한 페달 -소리는 지속시켜야 하고, 손은 떼야 하는 경우 사용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악보의 페달 사용은 왼손은 큰 도약은 아니지만 초급수준의 학생이 페달 없이 연주할 경우 힘들 수 있으므로 페달의 도움을 받는다. • 페달이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한다.

학습단계	레가토 페달을 위한 예비단계	6차시
학습목표	1. 레가토 페달의 예비단계로 레가토 페달을 정확하게 익힌다.	
학습내용	지도방법 및 학습내용	
레가토 페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가토 페달이 동시페달과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 보게 한다. • 레가토 페달을 설명하고 동시페달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준다. • 레가토 페달을 사용하여 ‘작은별’의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을 들려줌으로 레가토 페달의 흥미를 유도한다. 	
페달을 바꾸는 타이밍을 확인하는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을 바꾸는 타이밍이 늦으면 음이 끊어지고, 이르면 깨끗하지 않다 • 이 기능을 다음과 같은 예비연습을 통해 확인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반에서 음을 누르고 쉼표에서 손가락을 떼어내는 순간과 동시에 페달을 밟는다. -이때 소리가 남는지, 사라지는지를 확인시킨다. • 다음 연습 역시 귀를 집중시키며 페달을 바꾸는 연습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가지 악보와 같이 페달을 밟아 보고 차이점을 얘기해본다. • 첫 번째 악보는 ‘라’음의 타건과 동시에 페달을 밟으면 ‘술’음이 같이 울려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준다. • 두 번째 악보는 ‘라’음을 누르고 난 뒤 즉시 페달을 밟으면 깨끗한 ‘라’음을 페달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세 번째 악보는 ‘라’음을 누르고 난 뒤 쉼표에서 페달을 밟으면 ‘라’음을 페달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 깨끗한 ‘라’음을 울릴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연습시킨다. 	
레가토 페달의 예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가토 페달의 예비연습으로 다음 악보를 우선은 페달 없이 박자를 세며 연습하게 한다. 	



- 학생은 첫째 박자를 셀 때 음을 연주하면서 페달을 밟는다.
- 넷째 박까지 페달로 인해 지속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다음 첫째 박에서 새로운 음을 연주하고, 동시에 페달을 떼고 난 뒤 즉시 다시 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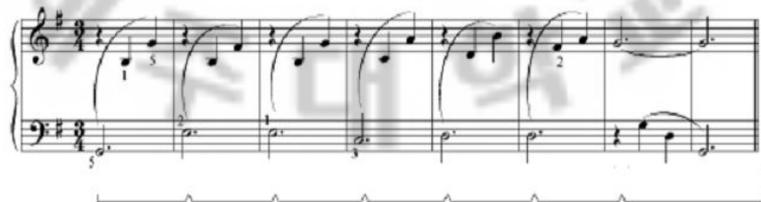
- 낮은 음자리의 악보 역시 첫째 박에서 음을 연주하면서 페달을 밟는다.
- 셋째 박까지 페달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 마디 첫째 박에서 새로운 음을 연주하고, 동시에 페달을 떼고 난 뒤 즉시 다시 밟는다.



- 같은 방법으로 쉬운 코드를 반복하면서 페달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익숙해질 때 까지 연습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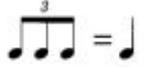


- 다음 악보 역시 소리가 섞이거나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시킨다.



- 같은 방법으로 위의 악보도 연습해 본다.
- 이렇게 예비연습을 통해 레가토 페달을 밟는 동작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충분히 하고나면 다음 차시에서 곡에 적용해본다.

제제곡	해변의 축제(부록악보5)	7차시
학습목표	1. 연주곡을 통하여 레가토 페달의 기능을 학습한다.	
학습내용	지도방법 및 학습내용	
악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손의 베이스음들만 먼저 쳐보게 한다. • 왼손은 4마디씩 "C-A-F-G"음이 반복되는 것을 학생에게 인지시킨다. • 오른손도 C,A,F,G 음을 근음으로 CM, Am, FM, GM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학생에게 인지시키며 치게 한다. • 이번엔 양손같이 악보를 보고 천천히 쳐본다. • 교사가 먼저 페달을 밟고 연주하고 학생은 소리의 변화를 듣는다. 	
페달 밟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Am-FM-GM 코드 진행 듣기 연습  <p>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four-measure chord progression in 4/4 time. The chords are CM, Am, FM, and GM. The bass line consists of single notes: C, A, F, G. The treble line consists of chords: C-E-G, A-C-E, F-A-C, G-B-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악보를 페달 없이 쳐본 후 페달을 밟고 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을 바꿔 줄 때 소리가 섞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 학생이 힘들어 할 경우 교사의 발위에 학생의 발을 얹고 교사가 밟아 준다. • 코드 진행 연습으로 페달 밟기가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을 밟고 쳐본다. • 마지막 13,14마디는 한 페달로 사용하기에 울림이 너무 커지므로 다음과 같이 페달을 바꿔 사용해본다.  <p>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pedal change exercise. It features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The treble clef has a melody starting with a mezzo-piano (mp) dynamic. The bass clef has a sustained bass note. A 'rit' (ritardando) marking is placed over the final measures of the bass li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연주해 본다. • ♩=100, 112, 126 까지 연주해 본다. 	

제제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부록악보6)	8차시
학습목표	1. 연주곡을 통하여 레가토 페달을 학습한다.	
학습내용	지도방법 및 학습내용	
악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잇단음표를 학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잇단음표를 큰소리로 세면서 리듬치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연습하고 양손을 같이 연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조이므로 파#에 주의하여 연습하게 한다. • 교사가 먼저 페달을 밟고 소리의 차이를 들려준다. 	
페달 밟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마디의 화음을 다음 악보와 같이 연습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엔 페달 없이 쳐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음의 변화를 귀로 들으며 집중한다. • 페달을 사용하여 천천히 연습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때 음이 섞이지 않는지 확인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시킨다. • 위의 악보가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지시한 대로 페달을 밟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힘들어하면 바로 전단계로 돌아가 다시 충분한 연습을 한다. - 멜로디 진행을 귀로 들으며 페달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 처음부터 셈여림에 주의하며 연주한다. • ♩=70으로 시작하여 88~96으로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시킨다. 	

3. 수업 지도방안의 결과

수업 지도방안에 따라 학습한 학생은 초등학생 5명으로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이다. 이 학생들 모두 페달을 처음 접하였고, 그래서인지 페달학습에 있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였다.

수업 지도방안은 앞에서 제시한 페달지도방법을 바탕으로 1차시부터 8차까지 나누어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 모두 페달을 밟는데 있어 페달이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매우 흥미를 가지고 학습하였고, 페달을 밟고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페달링이 잘 이루어졌다.

먼저 발의 훈련을 통하여 페달의 감각을 익히는 단계부터 청각훈련, 손과 발의 동시 훈련까지 예비단계를 3차시에 걸쳐 연습하고 동시페달을 곡에 적용시켰다. 이러한 예비단계를 연습한 결과 페달을 밟는 발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페달을 밟고 때는 타이밍이 적절하였다. 또한 페달을 사용 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음색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더욱 소리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음계와 화음을 통하여 페달의 감각에 익숙해지도록 손과 발과 귀를 함께 연습한 결과 학생은 소리와 발의 감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동시페달은 어려운 기법은 아니므로 학생들이 동시페달을 사용하여 연주할 때는 되도록 귀로 소리의 울림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소리의 변화를 듣고 곡의 분위기에 맞게 연주함으로써 페달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학습할 수 있었다.

레가토 페달을 학습 할 때에는 동시페달과는 다른 기법이므로 조금 힘들어 하였다. 동시페달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레가토 페달에서는 오직 손과 발에만 집중하고 소리의 울림은 아직 잘 듣지 못하여 화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였다. 손과 발과 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리의 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가 페달을 밟고 교사의 발위에 학생이 발을 올려놓고 페달의 감각을 익히며 소리를 듣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교사의 도움으로 인해 잠깐 동안 소리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불과하였다. 레가토 페달을 익히기 전의 예비단계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방법이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레가토 페달을 실제 곡에 적용시키기 전 1차시에서 예비연습을 하고, 곡을 적용시키면서도 페달을 밟고 때는 부분 연습을 통해 화음의 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는데 이러한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이 화음의 진행을 매끄럽게 소화할 수 있었고, 곡을 완

성하는데 있어서도 레가토 페달을 완성도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 레가토 페달은 페달링 학습에 있어 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하여 곡을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수업지도안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페달에 흥미를 느끼고 레슨 시간동안에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 진걸 느낄 수 있었다. 독보력과 청각능력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조건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는 교사가 페달을 밟음으로서 학생에게 소리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다.

학생들은 페달을 밟음으로서 소리의 울림이 달라지고 페달의 효과를 실감하면서 스스로 더욱더 곡을 완성도 있게 표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어렵다고만 생각되어졌던 페달을 밟고 곡을 완성시킴으로서 자신감이 생기고 집중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곡을 연주하고 싶다는 말을 함으로써 초급단계에서 페달의 학습이 매우 흥미로운 요소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초보자들에게 페달을 쉽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법이 많이 연구되어야겠고 발로만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닌 귀와 함께 페달을 사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이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악보1> 시계 종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을 밟습니다.

1/5

9

8^{va}-----| 15^{ma}-----|

f *mf* *p* 아주 여리게

<부록악보2> 토성의 폭풍

표현을 풍부하게, 자유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달을 밟아줍니다.

1 2 3 4

f 고풍하게

4 3 2 1

두 개의 현악음표를
일순으로 나내 연주

3

p 속삭이듯

4

5

mf

3

7

p

4

1

오른손 끝날

9

f (현악 소나타)

12

현악소나타
가장 밝은 D 장조

p 밝은 고풍하게

15

현악소나타
가장 밝은 D 장조

현악소나타
가장 밝은 D 장조

The image shows a piano score for '토성의 폭풍' (Storm of Saturn). It consists of seven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system number in a box (3, 5, 7, 9, 12, 15). The score is written in treble and bass clefs. It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dynamics (f, mf, p), articulation (accents), and performance instructions in Korean. A large, semi-transparent watermark for 'JEJU UNIVERSITY 1952' is overlaid on the score.

<부록악보4> 물결과 바람

장엄하게 스미스(Samuel F. Smith)

mf 물결이 뛰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네 땅과이변하고
 불결이 일어나 산위에 - -
 념치되 *rit.* 두렵지않네!

cresc.

f

<부록악보5> 해변의 축제

보통 빠르기로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piano in 4/4 time. It consists of four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starts with a mezzo-forte (*mf*) dynamic. The second system begins at measure 5. The third system begins at measure 9. The fourth system begins at measure 12 and includes dynamic markings for mezzo-piano (*mp*), ritardando (*rit.*), and forte (*f*). The score features a mix of chords and melodic lines in both the treble and bass clefs.

<부록악보6> 어메이징 그레이스

느리게, 풍부한 감정으로(♩=88~96)

외국 민요

13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피아노 페달을 지도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페달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법을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피아노 페달링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초급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오른쪽 페달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피아노 페달링을 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피아노 페달의 입문시기와 많이 사용되는 교재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아노 페달링 학습지도는 기초 단계부터 도입되어야 한다. 즉, 초기 예비단계가 지난 뒤에 신체적인 성장과 동시에 독보력과 청각능력이 발달되었을 때 페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른 페달링 기술 습득에는 오랫동안의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아노의 전반적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듯이 페달에 대한 기술도 초급에 입문하여서 체계적으로 습득되어짐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페달링 학습에서는 항상 듣기 연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는 듣기능력 없이는 페달링 학습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학생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페달을 밟도록 청각적 발달의 일부분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페달은 발로 밟지만 그 동작을 결정하는 일은 예민한 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달링은 손, 발, 귀를 동시에 사용하여 음악을 완성하는 예술적인 연주 기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초급 단계로 많이 사용하는 있는 교재로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 「베스틴 피아노 교본」, 「하이비스」, 「툼슨 피아노 교본」을 분석하였다. 이 교재 모두 학생이 페달을 처음 접할 때 화음과 동시에 페달을 밟아서 페달이 지속, 울림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아르페지오에서 같은 방법으로 페달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각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에서는 독보지도와 병행하여 비교적 쉬운 곡일 때 곡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피아노 페달의 감각을 습득시키고 있다. 또한 「베스틴 피아노 교본」에서도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페달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알프레드 교본보다 빠른 시기에 페달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비스」는 페달을 사용할 때와 페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학생 스스로 들으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어린 학생들이 페달을 접하기에 적합하리라고 본다. 「툼슨 교본」은 다른 교본에 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레가토 페달까지 다루고 있고 협

화음과 불협화음을 각각 페달 사용했을 때의 차이를 듣게 하면서 페달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준비와 기본학습으로 페달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준비 과정에는 페달 사용을 위한 기본자세와 예비단계로 페달을 밟고 곡을 연주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본학습 과정에서는 곡을 연주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시페달과 레가토 페달링의 순서로 지도하였으며 기초적인 연습곡들과 함께 살펴보았다. 동시페달과 레가토 페달은 전혀 다른 기법이기 때문에 동시페달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시킨 후 레가토 페달을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초급단계 페달 지도 방법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지도방안을 1차시부터 8차시까지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하고 학생들을 지도한 결과 학생들 모두 페달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페달을 익히기 위해 예비단계를 연습한 결과 무리 없이 소리의 변화와 페달의 효과를 실감하며 곡을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초급피아노 페달의 지도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페달링 학습 지도는 기초 단계부터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과 페달링 학습은 듣기 훈련과 같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올바른 페달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단계부터 이루어 져야 하고 정확한 페달 주법에는 정확한 청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달학습과 동시에 듣기 훈련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아노를 지도하는 교사는 페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페달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페달링에 의한 음색의 변화를 체득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방법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페달링은 손, 발, 귀를 동시에 사용하여 음악을 완성하는 예술적인 연주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가 단계적으로 반복된다면 앞으로 고도의 예술적 페달링의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페달링에 관한 지도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꼭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나 초급 단계에서 페달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가 교사들에게 페달링 학습의 관심과 교육의 의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페달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한국문헌

<단행본>

박영수(1988), 「피아노 주법 연구」, 세광음악 출판사

범영숙(2003),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육」, 삼호뮤직

백기풍 · 이봉기 공저(2006), 「일등제자 만드는 피아노 지도법」, 작은우리

송정이(2001),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이노우에 나오유키(1999), 「피아노 주법」, 태림출판사

<학술논문>

유덕희·홍삼화(1994), “피아노 페달 사용법과 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이데 유키코(2010), “초보자를 위한 피아노 페달주법 학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학위논문>

신미애(2001), “초급단계의 피아노 페달 지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여원(2009), “초급피아노 페달링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이선화(2007), “피아노 페달의 기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이효정(2005), “피아노 페달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연아(1994), “초급 피아노 페달링 지도에 관한 연구- 입문시기와 교재를 중심으로”, 단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주혜(2004), “초급 피아노 페달 교수법 연구 - Edwin E. Gordon의 오디에이션과 김영숙
의 예술적 청음에 근거하여”, 경원대학교 대학원

하주연(2006), “피아노 페달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및 지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
대학원

<정기 간행물>

홍은경(2004), “페달의 모든 것- 페달의 역사와 종류, 원리, 메카니즘”, 「피아노 음악」,
11월호, 음연

2.서양문헌

<단행본>

- Bastin, James W.(1981), 「피아노 교수법」, 정정식 역, 세광출판사
- Camp, Max W.(1995), 「피아노 연주법」, 안미자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Sandor, Gyorgy(2001), 「온 피아노 플레잉」, 김귀현·김영숙 역, 음악춘추사
- Banowetz, Joseph(2004), 「페달링의 원리」, 노영혜 역, 음악춘추사
- Last, Joan(1995), 「영 피아니스트 교수법」, 김수경 역, 음악춘추사
- Lindo, Algernon H.(1995), 「피아노 페달의 예술」, 장혜원 역, 음악춘추사
- Corazio, Piter(2001), 「예술로서의 피아노 연주 페달링」, 편집부 역, 음악춘추사
- Schnabel, K.U.(1976), 「페달의 현대기법」, 신인섭 역, 문수당
- Fink, Seymour(1999), 「피아노 테크닉의 완성-학생 교사와 연주자를 위한 안내서」, 조삼진 역, 음악춘추사
- Mark, Tomas(2004), 「피아노와 바디맵핑」, 문호선 역, 중앙아트
- Farcy, Katherine(2004), 「Artistic Pedal technique」, Charles Dumont & Son Inc

<악보>

- Willard A. Palmer, Morton Manus, Amando Vick Lethcod (1994),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 상지원
- 이테유미꼬·송지혜·정수임·세광편집기획실 공저(1996), 「하이비스」, 세광음악출판사
- Thompson, John(1997), 「톰슨 피아노 교본」, 세광음악출판사
- Bastien, James W.(1998), 「베스틴 피아노 교본」, 음악춘추사
- Faber, Nancy & Faber, Randall(2003), 「피아노 어드벤처」, 뮤직트리